

# II

## 서울학 연구방법 시론 - 역사학의 관점에서 -

고 석 규 (서울학연구소 초빙연구원)

### 목 차

- .....
1. 머리말
  2. 학제간(學際間) 연구로서의 서울학
  3. 서울문화의 특징
  4. 서울의 역사전통에 대한 이해
  5. 서울학 연구와 문화적 정체성(正體性)
  6. 맺음말

## 1. 머리말

사람들은 살기 위해 도시에 모이고 더 잘 살기 위해 도시에 머문다는 말이 있다. 따라서 보다 더 잘 살기 위한 도시공간을 마련하는 일은 도시가 지향해야 할 지상의 명제이다. 그런데 아무리 거대한 도시도 가족과 동네라는 일차적 사회단위와 조직, 즉 인류 최초의 사회를 이루었던 공동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도시의 생명이 바로 공동체적 삶에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도시의 발전이란 바로 인간사회의 공동체적 문화를 재생 발전시키는 것을 뜻한다.<sup>1)</sup>

한민족 전체의 삶의 중심지로 자라온 서울은 지금, 세계의 거대도시 속에 당당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급격히 변화 성장하는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비단 서울의 경우만은 아니겠지만, 지금 서울은 삭막한 생존경쟁의 장으로 전락하여 공동체적인 생명을 잃은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세계의 도시학자들은 무질서한 도시화가 낳은 생활환경의 악화의 예로 방콕, 테헤란, 카이로 등과 함께 서울을 첫손에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sup>2)</sup>

“거대도시의 문제야 서울”은 바로 우리들이 풀어야 할 지극히 어려운 숙제로 양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이러한 숙제의 무게에 압도당하여, 우리들은 600년이란 풍부한 역사적 소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혜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거대도시의 문제야 서울” 속에서 인간사회의 공동체적 문화를 재생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들은 무엇일까? 인간의 내면적 삶과 외면적 생활을 통합시킨 위에 서울을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열려진 공간, 세계도시로 재조직할 수 있는 잠재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학문적 차원에서 마련해 보고자 하는 욕구들이 모여 제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서울학’이다.

1) 루이스 면포드 저/金榮記 역, 1990 『歷史 속의 都市』, 명보문화사, 611쪽.

2) 高野史男 等 編, 1979 『世界の大都市』下, 大明堂, 8쪽 참조. 한편 최근 프랑스 도시사회학에서 거대도시 또는 초거대도시가 될 때 나타나는 몇가지 유형 중에 서울형을 뜻하는 것으로 ‘seoulization’ 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온갖 쓰레기, 오염, 환경파괴, 무질서, 범죄가 한꺼번에 폭등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을 의미한다고 한다(본서 수록의 「서울학 연구와 발전방향」 위크샷 토론요지 중 권태환 교수의 발언내용 참조).

‘서울학’이란 낯선 용어가 우리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3년의 일이다. 그러나 ‘서울학’이 새로운 학문의 장르로 성립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은 처음부터 만만치 않게 제기되었다. 그것은 지역학 자체에 대한 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학의 하위범주 혹은 현실태라 할 수 있는 ‘서울학’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었다. 그리고 ‘서울학’이 가능하다면 그 논의의 근본토대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 대상영역은 어떻게 갈래지을 것인가? 등등의 의문이었다.”

그때부터 이제 겨우 1년 남짓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지난 1년이었던 1994년은 서울 정도 600년을 맞는 해로서, 이를 “서울, 새로운 탄생”의 계기로 삼고자 다양한 기념사업과 연구활동들을 활발히 전개하였던 한해였다. 그리하여 서울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촉발시켰고, 서울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나름대로 “새로운 탄생”을 위한 조그마한 디딤돌을 놓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 정도 600년을 맞은 지난 1994년 한해 동안 ‘서울학’이란 이름을 달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던 서울학연구소의 입장에서는 지난 1년의 경험을 토대로 비록 어설픈 시론의 형태일지라도 “‘서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내려야 할 책임과 의무를 느낀다. 물론 단 1년만에 체계성을 담은 완성된 답을 내리기도 어렵거니와 그것이 하나의 학문으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면 그런 조급성이야말로 극복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구나 구체적인 연구들이 축적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감히 “서울학 연구방법 시론”이란 제목을 붙여 방법론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논의가 앞으로 ‘서울학’의 학문적 위상을 정립해 가는 조그마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일 뿐이다.<sup>4)</sup> 한편 서울학은 學際間 종합연구를 전제로 하여 출발

3) 남송우, 「서울학, 특별함과 대등함의 거리 좁히기」(1993. 12. 1., 『교수신문』) 참조. 이 글은 1993년 11월 16일자 『교수신문』에 실린 조명래 교수의 「일상적 삶의 구체적 공간, 사회과학적 인식 시작」이란 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서울론’으로 논의를 제기하였던 조명래 교수의 글을 ‘서울학’으로 이해하여 비판하고 있다.

4) 서울학과 관련된 방법론적 고찰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근래에 나온 『서울 연구』(1993, 한울)란 책이 그 한 예이다. 이 책에서 제시된 ‘새로운 서울론’은 공간적 실천을 가져오는 지식, 즉 권력화된 서울의 공간 속에 압도된 취약한 세력의 삶을 해방시켜 줄 조건을 밝혀 주는 지식이 되어야 함을(21쪽)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치경제학적 도시연구의 방법론을 취하면서 그 원칙들로서 유물론, 총체성, 상황성, 역사성, 계급성 등을 들고 있다(30쪽). 이러한 ‘새로운 서울론’은 서울학 연구의 방법론을 찾는데 하나의 유력한 대안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일 수는 없다는 전제 위에서 이 시론은 구상되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필자의 견해가 서울학 일반을 대변하는 것일 수는 없다. 그러나 서울학을 정립하는데, 역사학이 여타 학문분야보다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리라는 대강의 합의가 있었다고 믿고 “역사학적 관점에서” 라는 부제를 탈출구로 삼아 논의의 첫발을 내디뎈 보았다. 여기서 논의된 서울학에 대한 견해는 단지 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앞으로 많은 질정을 받으면서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거치른 시론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 2. 학제간(學際間) 연구로서의 서울학

서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적지 않게 행해져 왔다.<sup>5)</sup> 그러나 지금까지 과거의 서울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2차 사료에 의한 제도사적인 접근에 그칠 뿐이었고,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 없는 대화이다”<sup>6)</sup>라는 고전적 정의에도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서울에 있었던 특정 기구 또는 서울에서 일어났던 특정 사건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기구 또는 사건 자체에 국한하여 사실을 구명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연구들은 다분히 특정 분과학문의 범주 안에서 어떤 이론적 검증을 위한 방편으로 서울과 관련된 소재를 택하였던 것이지, 그것을 통해 서울의 정체성(identity)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들은 아니었다. 한편, 현대의 서울을 다룬 연구들은 과거와 단절된 채, 확대되는 도시문제에 따라 관찰영역을 넓히기에 급급한 현상추수의 일차원적 방식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정책적인 대안제시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았다.

5) 지금까지 서울과 관련된 소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서울학 논저 목록집』(서울학연구소, 1994)에서 포괄적으로 망라되어있다. 그러나 그중에서 실제로 서울학과 직접 관련된 연구논저들은 사실상 극히 제한적일 뿐이다. 서울에 대한 도시사적 관점에서의 연구동향에 대한 평가는 李泰鎮, 「조선시대 서울의 도시발달 단계」(『서울학 연구』 창간호, 서울학연구소, 26-29쪽)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역사학적 관점에서 서울에 대한 기존 연구에 대한 평가는 이 글이 많은 참고가 된다.

6) E.H.Carr 지음/곽복희 옮김, 『역사란 무엇인가』, 청년문고 21, 38쪽.

더구나 이와 같은 서울에 관한 연구들은 각 학문분야에서 분산적으로 행해졌을 뿐이다. 그것은 마치 서울의 도시공동체가 철저히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듯이 파편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어서 서울의 상을 입체적으로 그려내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연구들은 크게 보아 ‘서울 연구’ 라고는 할 수 있어도 여기서 말하는 ‘서울학 연구’ 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서울학 연구가 백지상태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연구는 서울학의 기초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학은 기존의 학문분야에서 서울을 대상으로 하고 있던 연구들을 공통의 장으로 묶어 그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자 하는데 일단의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서울학 연구란 과연 무엇인가? 서울학 연구는 어떤 점에서 서울 연구<sup>7)</sup>와 구별되는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차례이다.

우선 잠정적으로 서울학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려 보고자 한다. 즉 서울학이란 “‘서울’이라 불리는 지표면상의 일정 공간을 토대로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 왔던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모든 유·무형의 자취들, 즉 문화를 종합적으로 분석, 고찰하여 서울을 보다 나은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기는데 기여하는 학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잠정적인 정의 위에서 서울학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보기로 하겠다.

먼저 서울학은 서울이라는 지표면상의 일정 공간, 즉 지역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학의 범주에 속하며 서울이 한국의 대표적인 도시지역이므로 서울학은 동시에 도시사, 도시학과 상관성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역학과 관련시켜 볼 때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서울이 하나의 지역연구(area studies) 단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역이란 그 자체가 존재 의의를 갖고 있는 지리적 범위로서 그 域内の 주민들이 세계관을 공유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sup>8)</sup> 서울은 거기에 해당하는가? 서울이 그런 단위가 되는가? 만일 해당한다면 그 세계관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연속적인 질문이 던져질 것이다.

7) ‘서울 연구’란 영어로 표현하면, ‘Seoul Studies’가 될 것이다. 우리 말로는 이 ‘서울 연구’와 구별하여 ‘서울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서울학’이 ‘Seoul Studies’를 넘어서 ‘Seoulogy’에 이르렀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아직까지 ‘logy’란 접미사를 붙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학’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뜻은 ‘Seoulogy’를 지향하는 학문적 의지가 담겨 있음을 보이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8) 高谷好一, 1993 [‘地域’とは何か] 『地域研究の手法』, 弘文堂, 23, 34쪽.

지역연구는 세계 여러 지역 특히 발전도상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들의 성립과정 혹은 그곳에서의 인간 행위에 관하여, 필드워크조사를 축으로 하는 실증주의적 수법에 의하여 해명을 시도하는 학술적 연구라고 통상 이해하고 있다.<sup>9)</sup>

원래 지역연구는 학문적 활동이라기보다는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나라에 대하여 여전히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정책의 수단으로 택한 새로운 학문이었다. 즉 제국주의 국가정책의 수단 = 정책과학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다른 한편의 입장에서는 지역연구는 ‘지역’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매개로 하여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의미공간론적 인식론이라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지역연구는 두가지 속성을 지닌다. 하나는 상당히 비속하고 위험한 편의성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적인 세계관 형성의 힘이라는 것이다.<sup>10)</sup> 그렇다고 할 때, 서울학은 둘 중 어느 쪽이나를 굳이 따진다면, 물론 후자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정책과학이 아닌 순수학문적 접근이란 점에서 그러하다는 뜻일뿐이지 지향점이 같다는 것은 아니다. 서울학은 서울의 문화, 문명을 총체적으로 밝히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기 때문에 세계적인 조망은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학은 이런 유형의 지역연구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이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학이 크게 보아 지역학의 범주에 속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지역학으로서의 서울학은 그런 점에서 볼 때 대상에 따라 구분되는 학문분야이지, 사회학이나 언어학, 또는 지리학이나 인류학 등과 같이 기능으로 구분되는 학문의 장르는 아니다. 따라서 기능적으로 나뉘어진 여러 분야의 학문들이 하나의 공통적인 대상을 놓고 연구하여 얻은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엮어내는 일이야말로 서울학이 견지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서울학은 별개의 분과학문들을 유기적인 틀 속에 조화롭게 엮고 거기에 살을 붙여 하나의 생명을 불어넣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 즉 서울이란 지역의 총체성을 밝히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각 분야의 학문들을 그저 양적으로 쌓아 올리는데 그쳐서는 의미가 없다. 서울학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닌 그 이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열려진 마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안에서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과학과 공학·기술이 종합된 다원적이고 입체적인

9) 矢野暢, 1993 『地域研究とは何か』 『地域研究の手法』, 弘文堂, 3-4쪽.

10) 矢野暢, 같은 글, 14쪽.

학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도시는 거대한 용기가 되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누적되는 사람들의 사회활동을 모두 담아내고 있다. 그 온축의 과정에서 무한한 창조력을 발휘함으로써 역사를 이끌어 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야말로 도시의 본질적인 기능이다. 도시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기능의 복합체이며 문화의 거점인 것이다.<sup>11)</sup> 그중에서도 한민족 전체의 삶의 중심지로 자라온 거대도시 서울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서울학을 통해 서울이란 도시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울학 자체가 모든 분과학문을 담아내는 용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도시라는 용기와 그 안의 내용물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각 분과학문들이 총체적이고 학제적인 포괄성을 갖는 서울학의 틀 속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또 역사가는 시간을, 사회과학자나 자연과학자들은 공간을 각각 주목해 왔을 뿐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문연구에서 시간과 공간을 엮어내는 노력들은 거의 보여주지 못하였다. 시간과 공간의 결합은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학문적 장을 열어 줄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서울학의 방법론적 정립을 위해서는 서울이라는 공간을 시간 속에서 역사적으로 파악하는 새로운 논리와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요건들을 갖추어 나갈 때, 서울학은 각 분과학문의 시각차를 조정 통합하고, 또 각 분과학문이 서울 연구에 적용하는 이론적 방법을 조화시키는, 그리고 동시에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새로운 실험의 무대가 될 것이다. 서울이란 공간과 600년, 아니 2,000년이란 시간이 서울 사람들의 삶을 매개로 엮어질 때 서울학의 새로운 지평은 열릴 것이다.<sup>12)</sup>

결국 서울학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시도하고, 검증하는 열려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승-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이며 합의 효소, 고리는 곧 인간이다. 왜냐하면 모든 학문이 결국은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학은 인간과학이고, “서울’ + ‘학’ = ‘서울학’”이란 단순 조합은 아니다. 서울학에서 역사학이 기초를 이루어야 하는 까닭은 가장 인간적인 학문이 바로 역사학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역사학을 토대로 학문간의 벽을 허물자는 아날 제1세대의 가르침은 여기서도 여전히 유효하다.<sup>13)</sup> 아날 제1세대들은 그 학문간의 벽을 술한 대화를 통한 학제간의 공

11) 루이스 면포드/金榮記 역, 앞 책, 73쪽.

12) 全相運, 1993 「서울학 연구와 발전방향」 『서울학연구』 창간호, 17쪽 참조.

동연구에 의해 허물 수 있었다. 그들은 종합이라는 시대적 명제를 역사학적으로 실현 하였다.<sup>14)</sup> 바로 그 경험은 역사학의 관점에서 서울학 연구의 방법론을 세우는데 하나의 주요한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학의 연구방법론은 어느 특정 학문분야에만 적용되는 단일한 방법론이나 이론 일 수는 없다. 종합이라는 방법론이 있다면 그것이 곧 서울학의 방법론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도 너무 추상적이어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 구체성을 채워나가는 데 새로운 도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 연구를 위한 연구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다. 항상 시민들과 함께 하는 살아있는 연구,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연구가 되어야 하며, 그 안에는 마땅히 교육을 위한 준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3. 서울문화의 특징

서울학 연구의 대상은 서울의 도시문화이고 그 특성을 밝히는 것이 주요한 목표의 하나가 될 것이다. 문화는 그 사회가 공유하고 있고 또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신념, 가치, 태도 그리고 행동으로 구성되며, 역사적 특수성 및 조직과 변화에 관한 독자의 논리를 갖고 있는 제가치, 제규범, 사회적 제관계의 일정한 시스템을 말한다.<sup>15)</sup> 문화는 동적이며 살아있는 문화는 언제나 변화과정에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사회전체의 역학관계 속에서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수행되는 변화와 그 사회에 별로 동조적이지도 않은 외부압력에 강압되어지는 변화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sup>16)</sup> 그 차이란 바로 문화의 고유성이다. 서울의 문화적 고유성은 자연환경 속에서 상

13) 金應鍾, 1991 『아날학과』, 민음사, 133쪽.

14) 같은 책, 149쪽.

15) 吉原直樹 著, 1983 『都市社會學の基本問題-アメリカ都市論の系譜と特質』, 青木書店, 20쪽.

16) Robert Christie Mill, 『Tourism(현대관광론)』, 범한서적주식회사



징성과 실용성의 조화로, 역사 속에서 개방성과 포용성으로 민족을 통합하는 새로운 광장으로, 그리고 시민들의 공동체적 삶 속에서 대동사회의 건설로 드러나고 있다.

## 1) 상징성과 실용성

서울은 수량이 풍부하고 지류가 잘 발달되어 있는 한강을 끼고 있어 옛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다. 한강 주변에는 일찌기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보다 분명한 흔적은 지금부터 5,000여년전인 신석기시대부터 나타난다. 강동구 암사동 선사유적지가 바로 그것이다. 역사시대의 서울도 한강을 중심으로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백제의 시조 온조가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곳이 풍납동 몽촌토성 자리로 추정되는 위례성이다. 또 한강 유역은 삼국이 각축을 벌였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이처럼 서울은 한강이라는 풍부한 자연의 혜택 위에서 긴 기간 쌓여온 역사경험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역사의 주인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 고려에 들어와서 陽州로 불리던 서울은 문종 22년(1068)에 南京으로 승격되어 開京, 西京 등과 함께 三京의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조선에 들어와 바로 이곳 서울로 도읍을 옮긴 이래 漢城府가 되어 조선시대 500년을 꿰뚫어 이어갔다. 물론 본격적인 서울의 역사는 이때부터였다.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후 구세력의 근거지인 개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역성혁명을 한 군주는 수도를 옮긴다”는 명분 아래 일찍부터 도읍 후보지였던 한양으로의 천도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용이하지 않았다. 숱한 논의 끝에 마침내 태조 3년(1394) 8월 24일(양 9월 27일)에 새로운 도읍지로 한양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궁궐조성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처 완료되기 전인 그해 10월 25일(양 11월 26일) 태조가 개경을 떠나 10월 28일(양 11월 29일) 한양에 도착함으로써 서울 600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한양이 도읍으로 결정된 것은 물론 풍수상의 명국이란 점도 있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주요한 결정요인이 되었던 것은 서울이 국토의 중앙에 있다는 점, 또 한강을 끼고 있어 수로교통이 편하다는 점 등이었다. 『동국여지승람』에 보이는 “京都는 북쪽의 鎭山인 華山은 용이 서리고 호랑이가 쭈그리고 앉은 형세이다. 남쪽은 한강이 옷깃과 띠

처럼 둘러 서있고 왼쪽으로는 널리 높은 關嶺이 연접해 있으며, 오른쪽으로는 넓은 바다로 둘러싸였으니 그 지세의 훌륭함은 동방의 으뜸이며 천연의 요새지이다”<sup>17)</sup>라는 기록은 바로 서울이 풍수상의 명국이란 점을 잘 설명하고 있다. 한편, 천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태조가 “松京인들 어찌 부족함이 없겠는가. 이곳(한양)의 형세를 보니 王都가 될만한 곳이다. 특히 조운하는 배가 통하고 사방의 里數도 고르니 백성들에게도 편리할 것이다”<sup>18)</sup>라고 한 것이나, 조준과 김사형이 “한양 안팎의 山河形勢가 좋은 것은 옛부터 말하여 오는 터이며, 사방으로 도로의 거리가 균평하고 수륙의 교통이 잘 되는 곳이니 여기에 도읍을 정하여 길이 후세에 전하는 것이 참으로 하늘과 사람의 뜻에 합치되는 바이다.”<sup>19)</sup>라고 한 말은 서울이 최종 도읍으로 결정된 데에는 이와 같은 지리적 실용성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sup>20)</sup> 이렇게 본다면 서울은 풍수상의 상징성과 국토의 중앙, 수로교통의 이점이라는 실용성이 조화된 이상적인 도읍지였던 셈이다. 더구나 이후 서울의 도성건설과정에서도 이러한 서울의 자연적 상징성과 실용성을 최대한 조화시켜 나갔다. 서울의 고유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자연적인 조건에서 찾을 수 있다.

## 2) 포용성과 개방성

서울 600년의 역사가 조선왕조와 함께 시작했다는 것은 민족재통합의 새로운 광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조선왕조는 ‘조선’이란 국호에서 보듯이 민족기원인 단군조선을 계승하는 의식을 지녔고, 또 이때부터 오늘날과 같은 국가의 경계가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민족의 정형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신라가 삼국을 통일함으로써 최초로 민족의 통일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 통일

17) 『東國輿地勝覽』

18) 『太祖實錄』 권6, 태조 3년 8월 경진조.

19) 『太祖實錄』 권6, 태조 3년 8월 신묘조.

20) 풍수적인 측면보다 지리적인 측면 즉 실용성이 서울 정도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음은 李泰鎮, 「漢陽 천도와 風水說의 패퇴」(1994, 「韓國史市民講座」14, 一潮閣)에서 적극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그 주장에 필자도 물론 동의한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풍수적인 상징성이 서울 정도에 전혀 영향을 안미쳤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어느 일방의 승리나 패배라기보다는 풍수상의 상징성과 지리상의 실용성이 조화되어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고, 그 점에 더욱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은 불완전하였고, 경주는 여전히 신라의 수도일 뿐이었다. 또 고려는 그 명칭에서 보듯이 고구려 계승의식이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은 이런 점들을 극복하여 민족의 통합을 이루어 내었다.<sup>21)</sup> 한편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은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삼국이 모두 역사의 흔적을 남긴 곳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으로 이어지는 민족 통합의 기점은 바로 서울에 도읍하는 조선의 건국에서부터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된 수도 서울은 문화적인 포용성과 개방성을 가지면서 통합적인 민족문화를 산출해 낼 수 있었다. 이점이 서울문화의 고유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 3) 대동사회

현대 서울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그 뿌리를 굳게 내렸다. 서울에서 상업의 활성화는 이미 18세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sup>22)</sup> 그때 서울은 경제도시로 발돋움하였고, 서울 인구는 급증하였다. 17세기의 위기를 극복하고 맞은 18세기 서울의 번영을 상징하는 특징적 양상은 국왕(영·정조)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도성민과 의도적으로 활발하게 접촉하였다는 점이다.<sup>23)</sup> 이는 유교적 정치이념이 창출할 수 있는 도시 근대화의 한 유형으로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이런 흐름을 계승해서 19세기말 대한제국기에 동도서기론에 입각한 서울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사업도 국왕의 도성민과의 접촉을 의식하면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서울의 진정한 도시근대화의 방향이 무엇인지 짐작케 해준다. 결국 계승하여야 할 도시전통은 대동사회의 건설이었다.<sup>24)</sup>

일반적으로 도시는 내부적으로 균형잡히고 광범위한 외부환경과 조화되었을 때에만 번영한다. 대동사회의 건설이란 바로 이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21) 韓永愚, 1991 「漢陽遷都의 思想的 意味」 『우리 역사와의 대화』, 을유문화사, 74-76쪽 참조.

22) 서울이 상업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高東煥, 1993 『18·19세기 서울 京江地域의 商業發達』,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참조.

23) 이런 접촉은 이른바 上言·擊錚이라는 왕에 대한 직접 訴冤의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점에 대한 연구로는 韓相權, 1993 『朝鮮後期 社會問題와 訴冤制度의 發達』,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참조.

24) 이태진, 1994 「18-19세기 서울의 근대적 도시발달 양상」 『도시와 역사』, '94 서울학 국제심포지움 발표요지 참조. 여기서 이 교수는 대등관계 또는 대동사회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이것보다 대동사회라는 말 속에 좀더 포괄적의 의미를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은 하나의 지방행정단위이자 거대도시일뿐 아니라 한나라의 수도라는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서울은 결코 독립적이거나 폐쇄적 또는 자족적 개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이루어야 하는 대동사회의 건설도 세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특수성을 지닌다. 즉 ①서울 내부의 사회적 대동, ②도시로서의 서울과 농촌간의 대동, 그리고 ③서울과 지방도시간의 대동 등이다. 이 중 ②와 ③은 공생적이고 협동적인 지역간의 결합관계를 이루어야 함을 뜻하는데 이와 같은 지역간의 균형이 장기적 전망에서 특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번영된 삶은 시골지방의 농업발전에 뿌리를 두고 있다. 도시의 번영을 농토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도시인들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sup>25)</sup> 중앙권력과 지방이 진정하게 그 힘을 합쳐서 전체로 나아가도록 일을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민족 전체의 발전을 꾀하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원래 도시란 식량을 비롯한 일체의 필수품을 자급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따라서 도시는 이를 위해 농촌으로부터 필수품을 반강제적으로 조달하던가, 아니면 사치품을 농촌시장에 공급하여 이를 통해 필수품을 획득하여 왔다.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점차 우세해지는 후자의 방법을 취하기 위해 도시는 종래 사치품으로 취급되어 왔던 상품을 필수품의 대열에 끼워넣음으로써 사실상 사치품시장을 광범하게 창출해 나갔다. 그리고 이를 합리화하는 명분으로 “새로운 질의 문화적 생활규범을 창조해 나간다.”고 선전하였다.<sup>26)</sup>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외계층 중 첫째가 농민이었고 둘째가 도시의 하층민이었다. 높아진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의 부유한 도시민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구호도 그 삶의 주체가 누구인가, 또 질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나올 수 있다. 바로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것이 대동사회의 건설인 것이다.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 하에 도시가 되었건 아니면 농촌이 되었건 서울 이외의 지역을 소외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곧 제살꺾아먹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25) 루이스 멍포드/金榮記 역, 앞 책, 256쪽

26) 小路田泰直, 1991 『日本近代 都市史研究序説』, 柏書房, 3쪽 참조.

## 4. 서울의 역사전통에 대한 이해

서울학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울이 갖고 있는 도시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전제로써 서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있다. 그러나 복잡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적인 문제를 대중요법식으로 치유하려 들거나 확대되는 도시문제를 따라가기에 급급한 현상추수의 차원에서 벗어나 구조적인 메카니즘을 파악하여 근본적인 치유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전체사회적 문맥 내지 역사체제적 문맥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논리, 자세가 적극 요청된다. 즉 역사적 이해가 필요하다.<sup>27)</sup> 도시는 역사의 증인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성과는 도시에 누적되어 있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 도시는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의 전통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는 현재의 도시문제를 바로 볼 수 없게 한다.

우리는 애정을 가지고 역사가 서울에 남긴 흔적들을 이해하여야 한다. 서울은 역사적 수도(historic capital)이다. 그 역사경험은 어느 나라와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근대 100년의 역사경험은 오늘날 서울의 문제를 이해하는 관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의 근대 100년은 참으로 어려웠던 시기였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전 근대국가를 건설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려는 우리 선조들의 노력들은 그 숭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끝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어두웠던 식민지 시기에도 물론 좌절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민족의 해방을 찾기 위해 또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그런 노력들이 힘이 되어 마침내 해방을 맞았고 이제는 되찾은 조국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개발은 불행했던 과거, 식민지의 경험 때문에 차분히 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외형적인 개발에만 치중했다. 외형적인 개발은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위에서의 개발은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 그러한 한계들

27) 吉原直樹 著, 1983 『都市社會學の基本問題-アメリカ都市論の系譜と特質-』, 青木書店, 17쪽.

을 지금 우리들이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 최근에 성수대교의 붕괴와 같이 우리들을 놀라게 했던 많은 사건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건 마치 기초가 부실해도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쌓아지지만 그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결코 쌓을 수 없는 블럭쌓기와 같다. 이런 현상들의 밑바탕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듯이 모두 근대 100년의 역사가 물려준 자취들이 얽혀 있는 것이다.

1,100만의 사람들이 매일매일을 살고 있는 서울을 삶의 공간, 생명력 있는 도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얽힌 실타래를 풀듯이 서울 600년의 역사가 물려준 그야말로 영욕의 흔적들이 거대도시 속에 어떻게 엉켜 있는가를 아는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비록 영욕이 교차하는 역사일지라도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의 발달 모습은 전혀 다르고, 따라서 해결책도 다르다. 오늘의 서울의 문제는 고유한 우리의 역사로부터 오는 현상임을 자각하여 서구의 도시문제해결책을 일방적으로 적용시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시카고학과로 대표되는 도시사회학은<sup>28)</sup> 전통이 없는 미국도시의 사회문제를 이해하는 주요한 이론은 윌지언정, 우리 서울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직접적인 도구가 될 수는 없다. 도시가 형성, 발달하는 모습은 국토의 넓이나 형태, 국민구성, 정치체제, 역사적 배경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단일한 민족구성, 중앙집권체제의 전통을 지켜온 역사경험은 식민지가 남긴 왜곡과 더불어 분명 서울을 다른 도시와 달리 한 역사적 요인들이다. 이런 점에서 역사적 맥락에서의 접근은 서울학이 견지해야 할 요건의 하나인 것이다. 거기에는 비교도시사적인 방법을 매개로 독자적인 논리를 개발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600년의 서울도시역사란 어떤 특정한 하나의 별개의 주제로만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 자체가 종합이다. 정치사, 경제사, 종교사, 철학사, 과학사, 문학사, 예술사 등등 ‘史’ 라는 글자를 달고 있는 모든 분야의 역사연구에서 공동인자를 추출하여 종합을 달성하는 그런 역사, 즉 종합화한 역사<sup>29)</sup>, 그것이 서울학의 기초가 된다.

28) 吉原直樹 著, 같은 책, 14쪽 참조.

29) 金應鍾, 앞 책, 82쪽.

## 5. 서울학 연구와 문화적 정체성(正體性)

서울의 문화는 ①서울의 소지역이나 계급에 따른 문화의 차이를 포괄하면서 형성되는 내부문화, ②각 지방문화와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국가차원의 서울문화, 그리고 ③세계와의 만남에서 외래문화를 수용함으로써 형성되는 국제적 차원의 서울문화 등으로 이루어진다. 세가지 차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서울의 문화적 정체성(identity)을 확고히 해 나가는 것은 국제화시대를 맞는 서울이 세계도시의 하나로 자리잡기 위한 전제이며, 이는 동시에 서울학 연구의 과제이다.

지금 우리 서울은 국제경쟁력의 강화가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에 서있다. 국제화, 개방화의 추세 속에서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들은 국제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도시는 상호경쟁 관계에 들어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서울이 국제도시들간의 경쟁에서 얻는 성적은 곧 국가의 성적인 셈이다. 그만큼 서울의 경쟁력 강화는 매우 중요하고 또한 시급하다. 이때 경제 부문에서의 경쟁력 강화는 그 기본 전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문화경쟁력도 심상치 않은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일본의 동경은 'My Town Tokyo'란 구호 아래 동경르네상스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문화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徳川家康이 江戸에 들어온 1590년 이래 만 400년이 되는 해인 1989년경에 즈음하여 이른바 '江戸붐', '江戸東京붐'이 일어났고 그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특히 서울학과 비견되는 경향으로 江戸學 또는 江戸東京學이란 용어 아래 江戸東京에 대한 토론회 및 연구가 활성화하고 있다. 이런 경향 속에서 심지어는 '大阪學'이란 책도 쓰여지고 있다.<sup>30)</sup> 그중에서 江戸東京學을 제창한 대표적 학자로 알려진 小木新造는 "江戸東京學은 江戸부터 지금까지의 도시형성발전과 文化變容의 과정을 일관한 視点에서 파악하여, 그 연속성과 비연속성, 江戸東京의 도시로서의 특성을 學際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30) 大谷晃一, 1994 『大阪學』, 經營書院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江戸東京의 400여년의 역사 속에 퇴적된 先人들의 지혜를 재발굴하여 미래에 살리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sup>31)</sup>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동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히려는 운동의 일환이며 동시에 문화적 정체성 확보 내지 문화적 우수성의 전파 수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이제 국제사회는 단순히 자본의 수출에 그치지 않고 정신문화의 우월성을 확보한 위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전파하려는 시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세에 노출되어 있는 서울이 국제도시로서 당당하게 세계 속에 나서기 위해서는 물질적 선진화에 걸맞는 문화적 선진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점점 실감하게 된다. 나아가 문화적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울 시민 모두가 문화적 정체성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서울 시민들로부터 요청되는 강렬한 문화적 욕구 속에서 시민들 스스로 그런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고 믿는다. 서울 600년을 계기로 이런 문화경쟁력을 길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학은 그런 점에서 우리의 문화유산, 인간중심의 가치들을 다시 찾고 보존하는 계기적 학문으로서 역할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의 문화는 그것이 반드시 성대하다거나 우수하다거나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서울을 우리의 것으로 재인식한다는 것이다. 자주적인 정신을 기조로 한 자기의 발견, 자기를 재인식하고 재반성하여 자기 문화를 연구하고 자기 문화를 진흥시키는 일이야말로 국제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이 지배하는 문화권은 대한민국 전체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 6. 맺음말

지금까지 토막토막의 단편적인 논거들을 엮어서 매우 거칠고 성긴 서울학 연구방

31) 小木新造, 1991 『江戸東京學事始め』, 筑摩書房, 242쪽



법론이란 틀을 짜보았다. 필자가 처한 상황에서 오는 여러가지 제약을 구실로 내건다 하더라도 본고에서의 논의가 미흡하였음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그런 중에도 보다 나은 방법론을 찾기 위한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데에 필자 나름의 조그마한 위안을 얻는다.

‘서울 연구’와 스스로를 구별하고자 하는 ‘서울학 연구’는 학제간 공동연구를 전제로 열려 있는 공간이 되어 시간·공간·인간을 결합시킴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학문적 장이 되는 것을 방법론상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서울의 ○○에 대한 연구들이 ○○이 속하는 분과학문의 연구주제로 분류되기보다는 서울학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연구가 될 때 서울학의 영역은 확보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이 글을 쓰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다만 그 시간을 앞당기고 싶을 뿐이다.

그러나 한편 서울학은 하나의 연구분야(Seoul Studies)로는 자리잡을 수 있을 지라도 끝내 독립된 하나의 학문적 장르(Seoulogy)로 자리잡는 데는 실패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의 장르가 되느냐 못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서울학에서 시도한 여러가지 방법들이 여타 학문에 어떤 형태로든 유용한 영향을 준다면, 또 서울학이 서울의 미래를 위한 문화적 기초를 다지는데 조그마한 기여라도 한다면 그것으로 최소한의 역할은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서울학 연구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연구가 되어야 함은 당연한 명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적 지향성이나 또는 문화 행위의 정도가 삶의 질을 재는 유일한 수준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역시 총체적 수준에서 평가할 일이다. 이때 특히 주의하여야 할 점은 삶의 질을 높인다는 미화된 구호 속에서 도시사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물질적 질곡이나 계급적 야만성 등을 외면하여 버리는 잘못을 범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역사 속에서 진보란 도덕성과 결코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반비례하는 경우가 더 많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도덕성에 대한 최대한의 사회적 의무를 지키는 가운데에서 이룬 진보일 때에만 그 진보는 더욱 빛나는 가치를 가질 것이다.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이러한 점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이를 위한 가능성을 서울 문화의 특징 속에서 대동사회라는 것으로 찾아 보았다. 서울 문화의 특징으로 자연환경 속에서의 상징성과 실용성, 역사 속에서의 포용성과 개방성, 그리고 이 대동사회의 세가지를 지적하였는데, 이는 결

국 앞의 두가지가 대동사회의 건설을 위해 계승해야 할 바람직한 서울의 역사전통임을 지적한데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주적인 관리, 민주적인 통제는 거기로 가는 튼튼한 길이 되어 줄 것이다.

또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적 성장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도시로 자랄 수 없다. 600년 고도로서 서울의 장점을 살리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 제일의 시민문화를 일으켰을 때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 바로 이를 위해 서울의 문화적 정체성을 시급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세계화, 세계 속의 서울이 되는 전제가 서울에 대한 주체적인 개별성의 인식인 것이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문화적 정체성이란 어디까지나 보편성의 전제 위에서 확인되는 개별성이란 것이지 보편성을 외면한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보편성을 지녀야만 통합의 접점을 찾기 때문이다. 서울학의 연구성과들이 쌓여서 서울의 문화를 다듬고 재발견하여 물질적 풍요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삶의 조건들을 마저 채워 줄 수 있다면, 그래서 서울을 시민 모두가 사랑스럽게 살 수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한다면, 서울학은 무엇보다도 실용적인 학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공동목적을 위해 발생한 도시에게 공동체적 삶을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을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도시의 원초적 생명을 되살려 주는 것이다.

서울학 연구의 바른 정립은 연구자들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또 그래서도 안된다.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고, 특히 시민이 소외되지 않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 아니 시민이 주인이 되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도덕적 안정성에 기초한 발전을 목표로 매진할 때 서울학의 성과들은 서울시민 모두가 진정 함께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